

대우중, 에어버스사로부터 A340-600 여객기 날개구조물 500대분 수주

유럽 에어버스가 개발한 최신기종 A340-600 여객기의 날개구조물(Wing Stringer) 500대분을 2천만달러에 수주했다고 10월 30일 발표했다.

날개구조물은 비행기 날개를 힘으로 지탱해주는 핵심 구조물로 최대 8미터 길이를 5축가공기로 정밀가공해야 하는 등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우중공업이 유일하게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사는 내년 3월 첫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2003년까지 전량 인도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발주 물량에 대해서도 독점 공급권을 갖기로 했다.

대우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에어버스사의 주요 구조물 공급업체중 하나인 미 TAC(The Aerostructures Corp.)사에 공급한 A320기 동체구조물과 날개구조물이 품질면에서 인정을 받아 이번 수주가 성사되었다”고 밝히고 “이미 에어버스사가 세계 7대 운항사로부터 약 1백대분의 A340-600기를 수주해 놓고 있는 등 개발기종이 호평을 받고 있어 대규모 추가발주도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중공업은 지난 96년 말부

터 에어버스사에 대한 영업을 강화해 97년 이후 4건, 약 1억달러 상당의 항공기 구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340-600기는 오는 2002년 첫 취항할 계획으로 있는 에어버스사의 최신기종으로 3백80석 규모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

삼성항공, 최초 국산 SB427 헬기 국내 첫 판매계약 체결

삼성항공은 서울에어쇼98 행사 중인 10월 26일 미 벨사와 국제 공동개발, 국내생산판매하는 국산 SB427헬기 3대 판매계약을 헬기 운항업체인 헬리코리아와 체결했다. 국산판매 1호기는 내년 12월에 첫 인도될 계획이며, 2대는 2천년 이후 인도될 예정으로 헬리코리아는 이 헬기를 산불진화, 화물인양업무 및 부정기 운송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삼성항공은 이 헬기 개발을 위해 총 1억 달러를 투자해, 국내·중국 및 동남아 헬기판매권을 획득했고, 이 기종에 장착되는 동체전랑을 국내 제작해 캐나다에 수출하는 등 향후 15년간 완제기 국내생산, 판매 및 동체 740대분 수출을 통해 총 15억달러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기관, 운항업체 등과 SB427 수출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의 헬기국영기업, 삼성물산 지점망 및 현지딜러 등을 연계한 현지 판매망을 구축해, 99년부터 본격적인 대량판매를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15년간 8억달러의 SB427헬기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현대, DASA LFK와 유도탄 접근경보장치 사업관련 협력계약 체결

현대우주항공과 세계 5대 방산업체인 독일의 다임러벤츠 에어로스페이스(DASA) 산하 LFK사는 Pylon 탑재용 유도탄 접근경보장치(MAWS)에 대한 독점 협력계약을 지난 10월 30일 체결했다.

현대우주항공과 LFK사간의 구체적인 작업범위는 향후 추가 합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현대는 MAWS의 Pylon 탑재 및 항공기 체제종합업무를 담당하며, MAWS 장착용 Pylon 및 구성품을 생산하게 된다.

동 사업추진을 위해 현대우주항공은 이미 98년 3월에 정부에 전문/계열화 업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조만간 유도탄 접근경보장치 생산 전문업체로 선정될 전망이다. 유도탄 접근경보장치(MAWS : Missile Approach Warning System)는 유도탄에서 발생하는 자외선 또는 열을 감지

하여 적의 유도탄 공격으로부터 전투기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서, 유도탄의 접근을 사전에 조종사에게 경고함으로써 전투기에 탑재된 유도탄 방어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주는 성능을 갖춘 첨단 시스템이다.

기아중공업, 랜딩기어 수출계약

영국 웨스트랜드사의 링스 헬기에 장착되는 랜딩기어를 개발, 국제적인 랜딩기어 제작업체로 자리 잡은 기아중공업이 거듭된 수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에어쇼 행사중인 지난 10월 28일 영국 웨스트랜드사 부스에서 가진 서명식에서 기아중공업은 슈퍼 링스(Super Lynx) 헬기용으로 50만 파운드 가량의 랜딩기어를 제작기로 계약했다.

웨스트랜드사의 슈퍼 링스는 지난해 한국 해군이 13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기아가 제작하는 랜딩기어는 한국 해군 외에도 전세계 판매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대한항공, 미 시콜스키사와 헬기 공동개발 및 생산협약 체결

대한항공과 세계적인 헬기 제작

사인 미 시콜스키사가 헬기개발 및 마케팅 등에 있어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사간의 양해각서는 10월 26일 서울에어쇼 행사장에서 체결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의 헬기 공동 마케팅, 유지부품 공급 기지의 공동운영 등을 위해 상호기술 협력 및 인력교류 등 헬기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는 기존 UH-60 블랙호크 헬기의 성능개량 및 개조, 차세대 헬기 공동개발, 공격용 헬기 공동생산 및 판촉, 기타 특수 용도의 헬기 제작 등이다.

삼성항공 F-5 전투기용 시뮬레이터 개발

삼성항공이 조종사 훈련용 전투기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공군에 공급했다. 삼성항공이 20억원을 투자해 1년 6개월만에 개발한 시뮬레이터는 F-5E 제공호 조종사 훈련용이다. 이번에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F-5 전투기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3,000여대가 운용되고 있어 삼성항공은 해외 시장 개척시 1,500억원 규모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항공이 이번에 개발한 시뮬레이터는 특히 비행훈련시 실제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반도 전역을 3차원 영상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했고 실제 전투비행단 주변지역의 주요 지형지물을 상세히 묘사해 훈련의 사실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비행중 발생하는 엔진소음, 랜딩기어 작동음, 공기마찰음, 유도탄 발사음 등 소음까지도 실제와 똑같이 느낄 수 있게 했다. 삼성항공은 이번 F-5E용 시뮬레이터 외에 국내 보유 항공기들의 시뮬레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 대테러작전용 러시아제 헬기 도입 확정

경찰청은 10월 26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대테러 작전용 헬기 기종을 러시아제 28인승 MI-172 헬기로 확정했다.

러시아제 헬기의 도입 가격은 99억 7천 2백만원이며 내달중 조달청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 내년 11월말 이전까지 국내에 도입된다. 이 헬기는 대러시아 경협차관의 현물상환 조건으로 도입키로 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되며, 헬기 구매대금의 50%는 경협차관 현물상환, 50%는 현금으로 지불된다.

헬기 도입가격은 당초 도입이

검토됐던 프랑스제 슈퍼 푸마 헬기 가격이 2백50억원 가량이었던 데 비해 약 40%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다.

러시아 카잔사가 90년대 개발, 제작한 MI-172 헬기는 순항속도 2백30km/h, 항속거리 7백37km, 항속시간 4시간5분, 분당 상승률은 5백40m이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11~16일 예산청, 조달청 관계자와 함께 러시아 헬기 제작사를 방문, 실사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MI-172 헬기는 성능, 구조면에서 테러작전용 헬기로 손색이 없으며 부품공급 및 가격, 기술지원 등의 조건에 큰 문제가 없어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항 건설 붐

호남권의 중추공항이 될 무안신공항이 내년 11월 착공된다. 또 김해공항 1단계 확장공사가 내년에 완공되고 전주권 신공항은 기본설계가 시작된다.

지난 27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목포공항을 대체하게 될 무안신공항 건설공사를 내년 11월에 착공, 2002년까지 완공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10월말까지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끝내기로 했다. 길이 2천8백m, 폭 45m 짜

리 활주로를 갖추게 될 무안신공항이 개항하면 중대형 항공기인 A300기종의 취항이 가능하고 B747 점보기의 훈련비행도 가능해진다.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원에 들어서는 무안신공항은 연간 650만명의 여객과 6만5천t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난 92년 8월에 착공한 김해공항 1단계 확장공사를 내년 12월에 완공함과 동시에 2단계 확장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김해공항 1단계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길이 3천2백m, 폭 60m의 대형 활주로를 이용해 B747 점보기 운항이 가능해지고 관제탑도 첨단시설로 바뀐다.

건교부는 2단계 확장공사에서 연면적 3만8천㎡의 국제선 여객 터미널을 신축하고 연면적 21만㎡의 계류장도 갖춰 김해공항을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전북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원에 건설키로 한 전주권 신공항은 내년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하고 2000년에는 설계와 용지보상을 마무리한 뒤 2001년에 착공, 2003년에 완공기로 했다. 군산공항을 대체할 전주신공항은 길이 1천6백m, 폭 45m의 활주로를 갖출 예정이다.

보잉 747 생산량 감축

보잉사는 아시아 지역의 시장 변화에 따라 현재 월 5대인 747-400의 생산량을 내년 2/4분기까지 월 3 1/2대로 줄일 전망이다. 보잉의 펠 콘넛 회장은 주요 고객이었다던 아시아 지역의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생산량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4분기 보잉의 영업실적은 130억 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그 중 3억4천7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작년 같은 기간에는 항공기 제작과 인도 지연으로 인해서 6억9천6백만 달러의 손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생산량 감축은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 14대에서 21대로 증가한 신형 737기의 생산량은 1999년 2/4분기까지 월 24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앨런 멀렐리 상용기 그룹의 신임 사장이 밝혔다. 롱비치의 제 2조립라인이 완성되면 737기의 생산량은 최고 월 27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엔진 제작사 구조 조정 요구

러시아의 항공기용 엔진 생산업

체들이 엔진 생산업체 전반을 재구성해서 하나의 단일 회사로 설립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혼탁한 현재의 러시아 경제상황 속에서 다음 세기도 살아남기 위한 지구책으로 보인다. 이 요구는 지난 10월 20일 러시아 하원에서 열린 러시아 항공산업 현실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항공용 엔진 제작사협회 회장인 빅터 추이코는 현재 러시아에는 아홉 개의 엔진 제작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다섯 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군소회사들을 보다 경쟁력있는 큰 회사와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작사들은 업계의 구조 조정과 함께 리스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률은 제작사들에게 현재보다 50% 이상의 성공 확률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1996년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용자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러시아 엔진 제작사들의 상태는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새로 개발되는 러시아제 전투기에 미국제 엔진을 달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항공기 급유·기내식 장비 국산화 성공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던 항공기 급유 및 기내식 공급 장비 등이 국내 중소기업체에 의해 개발돼 양산화에 성공했다.

공항지상조업장비 전문제조업체인 가나공항산업(주)(대표 황선건·경기부천시 오정동)는 보잉 777기까지 급유할 수 있는 항공기 급유장비인 리퓨엘러'와 하이 드런트 디스펜서'를 개발해 지난 26일부터 11월1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린 98서울에어쇼'에 출품, 전시했다.

공항지상조업장비 관련 제조업체로는 단독으로 이 행사에 참가한 가나공항산업은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대형 항공기 급유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연간 50억원 가량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외화획득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며 "아시아 각국과 중동, 남미 등으로부터 수출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한 5천갤런짜리 대형 리퓨엘러 구매 사업에서 미국, 호주, 영국 등의 외국 업체를 따돌리고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가나공항산업은 지금까지 항공기용 리퓨엘러와 하이 드런트 디스펜서 외에도 기내식 공급 장비와 항공기 시동장비 등

16개 종을 개발한 바 있다.

日 제2 항공사 全日空, 내년 가을 스타그룹 가입

일본 제 2의 항공사인 ANA(全日空)는 현재 독일 루프트한자등 6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항공사 제휴인 스타 그룹에 내년 10월부터 가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노무라 기치사부로(野村吉三郎) ANA 사장은 "스타 그룹이 항공여행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ANA와 공동 목표를 추구해 참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최근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항공사끼리 탑승 마일리지 공유, 항공사 라운지 공동 사용, 항공기 공동 구입 등의 제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드러진 추세다.

ANA는 금명간 스타 그룹과 항공기 공동 운항, 마일리지 공유 문제 등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스타 그룹에는 현재 루프트한자 외에 에어 캐나다, 태국항공,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브라질의 VARIG 등 6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항공, 앤세트 오스트레일리아도 내년 5월 합류할 예정이다.